

8. 몽골족을 동업자로 포섭한 만주족 청: 병민일체-이한치한

Motivational Episode

청(1616-1911) 나라 지배자들은 여진족 금 왕조의 창건자들이 자신들의 직계 조상(金源同派)이라고 굳게 믿어, 자신들이 세운 나라를 1636년까지 후금이라 불렀다. 청 나라 황족의 혈통은 아이신지오로(愛新覺羅)라 부른다. 아이신은 “금(金)”을 의미하고, 건륭제(乾隆帝 r.1735-96)에 의하면, 이것은 만주족이 본래 금 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직계 후예임을 확신하게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흙정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는 만주와 만주족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건륭제가 1777년 9월 20일 명령을 내려 대학사총리(大學士 總理) 아규(阿桂) 등의 감독하에 한림원 편수들과 대신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편집진이 6년에 걸쳐 편찬을 완료하고, 건륭제의 유지(諭旨)를 권두에 실어 1783년에 청 조정이 발간한 것이다.

건륭제는 유지 첫머리에서 금 시조가 옛 숙신 땅인 장백산(長白山)-흑룡강(黑龍江) 지역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땅이 바로 만주족이라고 불리게 된 자신들의 왕조가 처음으로 시작한 장소 이었다고 천명했다. 건륭제는 “숙신(肅慎)”에서 “주신(珠慎)”이, 주신에서 “만주(滿珠)”가, 또 만주에서 “만주(滿洲)”가 유래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건륭제는 곧이어 한반도의 삼한 얘기를 꺼낸다. 삼한의 한(韓)이 칸(汗) 즉 통치자(君長)를 뜻하는데, 무식한 한족(漢族) 사가(史家)들이 한을 부족의 이름(族姓)으로 알고 마한, 진한, 변한의 삼국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후한서 동이 열전은 “진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머리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모두 돌로 눌러 놓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만주족) 관습에 의해 신생아를 나무로 만든 침구에 눕혀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아기의 머리가 납작해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진한 역시 동일한 풍습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한다. 한족 사가들이라는 존재가, 특히 명 나라 때 와서는, 글자 한자 한자 그저 동이(東夷)들을 깎아 내리고 헐뜯기 위해 짓어 대는 개들 같이 되었다고 (致明季狂誕之徒尋摘字句肆爲詆毀此如桀犬之吠) 말한다. 건륭제는 격앙된 감정을 여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에 썼다. 짧은 건륭제 유지의 1/3 정도가 놀랍게도 한반도의 삼한 얘기다.

금사 지리지는, 금이라는 국가 명칭이 송화강 하류로 흘러 드는 “아시” 라는 강의 여진 명칭에서 유래한다고 말한다. 금 조정은 이 외딴 작은 강 유역에 상경(上京)을

설치했었다. 만주원류고의 내용을 보면, 만주족의 원류(源流)를 숙신-말갈-여진족과 발해 사람들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람들에게서도 찾고 있다. 7권의 완안(完顔) 관련 기록을 보면, 비록 「금사(金史)에는 금 시조가 본래 고려[고구려]에서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初從高麗來), 대금국지(大金國志)에서는 그가 원래 신라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本自新羅來姓完顔氏/其帥本新羅/金始祖本從新羅來). 요사와 금사는 왕왕 신라와 고구려를 혼동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며, 김(金)이라는 신라 왕들의 성은 이미 수 십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新羅王金姓相傳數十世), 나라를 세우면서 신라 왕성을 본 따 국명을 금(金)이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부연해서 설명을 했다(新羅王金姓則金之遠派出/金之自新羅來無疑建國之名).

위서 동이전은 숙신-읍루족을 화살촉에 독을 묻히는 무섭고 사나운 야만족으로 기술 하였다. 청조 지배자들은 만주족의 뿌리가 이같이 호전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옛 왕국 사람들에게도 그 뿌리가 있다고 확신했던 (혹은 믿고 싶었던) 것 같다.

고려조까지만 해도 한반도 지배층의 핵심은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유학(儒學) 엘리트가 아니라 불교를 숭상하는 세습 귀족계급이었다. 배불숭유(排佛崇儒) 이념으로 건국을 한 조선조 지배 층은 (특히 1623년의 仁祖反正 이후) 명(明)나라 원군 덕분에 임진왜란(1592-8)에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면서(再造之恩), 청조 지배자들이 어떠한 민족적 이념을 가졌는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 왕조의 위업을 거듭 실현해 온 만주의 사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면서, 그들 어깨 너머로 왕년의 한족 중화제국을 마치 주자(朱子)가 그리는 유교 사회의 이상인양 우러러보는 모화(慕華) 편집증(偏執症)에서 헤어 나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주도학에 심취한 조선조 지배층은 새삼 (만주족 통치하의) 한족을 대신한 골수 유교전통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파악이 불가능한 혼돈 상태에 빠졌던 것 같다.

팔기 제도(八旗制度): 병민일체(兵民一體)의 사회 조직

1601년, 누르하치(1559-1626)는 자신이 지배하는 여진 부족을 황-홍-백-남의 깃발로 구별된 네 개의 기병(旗兵) 집단으로 편성한 다음, 아들-조카 네 명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군사와 민사(民事)를 처리케 했다. 국호를 금(金)이라 정한 1616년, 누르하치는

이들 네 개의 기병 집단을 각각 양분하여 팔기(八旗)를 편성했고, 자신이 2-3개를 직접 지휘했다. [A.8.1.]

팔기의 기본 단위는 만주족 수렵 관행에서 자연 발생한 니루(牛录/矢 화살)라는 장정 10인 단위의 혈연 조직이 장정300인 단위의 행정-군사 조직으로 발전한 것이다. 전쟁이 나면 장정들이 돌아 가며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단위 부대에 속한 가구들 역시 해당 세습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며, 가족과 노예를 보호하고, 소유 농토를 경작할 수 있는 씨족 단위의 조직이며, 평상시 주민 등록의 근거가 되었다.¹

누르하치와 홍타이지(태종 r.1626-43)는 팔기 조직을 1640년대 초까지 제도적으로 완성시켰다. 팔기병 요원들은 정복과 통치 목적을 위해 군사와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² 팔기병이 군인-서기-관료 등 범-국가 통치 기능요원의 역할을 수행 한다는 이상은 정복 후에도 계속 청나라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³ 팔기병 집단은 구성원 개개인이 관료로 선발될 기회가 부여된 인재 풀을 형성 했다. 팔기병들은 전쟁 노획물과 포로 노복(奴僕)을 분배 받았고, 평상시에는 쌀과 녹봉을 지급 받았다.⁴ 팔기 제도란, 표면적으로 보면 일종의 군사제도이지만, 금의 멍안-모우케 사회-군사 조직보다 한층 더 고도로 군대화된 병민일체(兵民一體)의 사회 조직인 것이다. Elliott(2001: 348)은, 황제 한 명만을 제외하고, 만주족 남녀노소 전원이 팔기 조직에 속했다고 말한다.⁵ 누르하치의 아들-조카 등 가까운 황족 출신 기주(旗主/八紮)들은 각자가 맡은 기(旗) 안에서 민사-군사를 총괄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¹ Spence (1990: 27), Crossley (1997: 207), Barfield (1989: 253) 참조. 각 니루 마다 10명은 기병으로, 200명은 보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보통 25개 니루, 7500 명이 1개의 기(旗)를 이루었다. 노복(奴僕)은 농사와 가사를 담당했다. 任桂淳(2000: 31-6) 참조. 누르하치는 항복하거나 정복한 부족들을 자신이 직할하는 초(超)부족 시기(矢旗) 군사계급으로 흡수 편입시켰다.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는 아직도 현(縣)과 향(鄉)을 깃발(旗)과 화살(矢)이라고 부른다.

² Crossley (1999: 287-9) 참조.

³ Crossley (1997: 127)

⁴ Fairbank (1992: 146-7)

⁵ 실은 팔기병의 지위를 포기하면 상업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팔기 출신 관료와 중국식 (以漢治漢) 행정 기구

누르하치 편으로 넘어온 요동의 한족 지식인들과 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누르하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명에 칭호를 받으며, 후금 고위 관직에 임명되었다.⁶ 정복된 한족 수가 급증하자 이들을 통치할 본격적인 행정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홍타이지는, 1629년, 심양에 만주족, 몽골족, 한족 비서관들로 충원된 문관(文館/1636년에 내삼원(內三院)을 설치했고,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도입했다. 1631년에는 팔기 출신 관원으로 육부(六部)를 설립해 팔기 기주들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시키고, 중앙집권적 행정 조직을 확립했다. 각 부의 장관은 황족이 맡았고, 그 아래 승정(承政)은 만주족 2명, 몽골족 1명, 한족 1명으로 충원했다. 1636년에는 감찰 기관인 도찰원(都察院)을, 1638년에는 내외몽골 업무를 관장하는 이변원(理藩院)을 설치하여, 북 중국에 진입했을 당시 만주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도 중국식으로 통치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몽골 팔기, 요동 한군 팔기: 몽골족을 흡수하고 요동의 한족을 동원

1632-4년, 홍타이지가 내몽골의 차하르(察哈爾) 부족을 다른 몽골 부족들과 연합하여 격파 하고 전국옥새(傳國玉璽)를 획득하자, 내몽골 부족 장들이 심양(瀋陽/盛京)에 모여 동맹 관계를 맺고 홍타이지에게 몽골가한(蒙古可汗) 칭호를 올렸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몽골 귀족 가문과 적극적인 혼인 관계를 맺어 두 종족간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1612-15년 기간 중, 누르하치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6명의 몽골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홍타이지는 12명의 딸들을 몽골 부족장들에게 시집을 보내, 결혼 동맹 정책을 한층 더 강화 했다."⁷ 홍타이지의 모친(孝慈)은 몽골 부족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청 태종(1626-43)은 50%의 몽골 유전자를 가졌다. 순치제(順治帝 r.1643-61)의 모친은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었고, 강희제(康熙帝 r.1661-1722)의 할머니가 된다. 순치제는 75%의 몽골 유전자를 가진 셈이다.⁸

⁶ Spense (1990: 28) 참조.

⁷ Perdue (2005: 124)

⁸ 순치제 황후(孝康)의 부친은 한군팔기 도통(正藍旗都統 修圖賴)이었고 모친은 아이신지오로(愛新覺羅) 황족이었기 때문에 강희제(r1661-1722)의 유전자는 37.5% 만주족, 37.5% 몽골족, 25% 요동한족

만주족은 중국본토를 정복하고 신생제국을 통치하는 사업에, 서만주 초원을 포함하는 내몽골 전역의 몽골족을 포섭해 종속적인 협동자(junior partner)로 참여시켰다. 1635년, 홍타이지는 만주족과 동일한 형태로 몽골족 팔기군을 편성했다.⁹ 만주 국경으로부터 감속성에 이르는 내몽골 지역의 (몽골화한 거란족을 포함하는) 모든 몽골족이 팔기 조직에 흡수 편입된 것이다.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들은 자신의 부족을 지휘하면서 청 조정의 직위를 수여 받았다. 청조는 각 몽골 부족에게 지정된 목초지를 고정적으로 배정해 주고, 각각 별개 동맹자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몽골족을 효과적으로 분열시키는 동시에 기동성을 제거했다.¹⁰ 청조는 내륙 아시아 변경 수비를 몽골 팔기군에 크게 의존했다.¹¹

1637년, 홍타이지는 요동지역에서 귀순한 명나라 군사와 요하 주변에 거주하는 한족을 동원해 2개의 한군 기병(漢軍旗兵) 집단을 만들었다. 1639년에는 4개로, 1642년에는 8개로 확장 하여, 중국대륙 정복을 위한 한군팔기 편성을 완료했다. 577년, 북주(556-81) 무제(r.560-78)는 우문태가 550년경에 만들어 놓은 부병제를 통해 관중의 변방 한족(Frontier Han Chinese)과 융적(戎狄 Turco-Tibetan) 부족들을 동원하여 선비 24군을 확충한 다음 북 중국을 통일했다.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한 이래 수많은 한족들이 요하 유역에 정착 하게 되었고, 새롭게 성격적인 진화를 거듭한 이들 정착민의 후예가 청나라 군대에 가담하여 이제 한족 팔기군을 구성한 것이다. 만주-몽골

인 셈이다. 옹정제(雍正帝 r.1723-35)와 건륭제(乾隆帝 r.1736-96)은 모두 만주족 모친을 가졌다.

⁹ Spence (1990: 30-31), 김한규 (2004: 565), 전백찬 (2004: 205) 참조.

¹⁰ “청조는 몽골 귀족층에게 (세습적인 권위, 충성도 등을 감안해) 직위와 봉토를 적절히 구획-배분해주는 준-봉건 제도를 실시했다. 초원이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자, 유목민의 강점인 기동성이 소멸되었고, 몽골 귀족은 청조로부터 좀더 큰 권한과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자기들끼리 경쟁을 했다.” Jagchid and Symons(1989: 21) 인용.

¹¹ Elliot (2001: 75)와 Jagchid and Symons (1989: 21) 참조. 외몽골은 강희제가 169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친정을 하고, 서 몽골족을 이끌고 외몽골을 침략한 갈단(Galdan)이 1697년에 자살을 한 후에야 완전히 복속을 시킬 수 있었다. 내몽골, 외몽골 등 “[동]몽골 부족들을 성공적으로 흡수 편입 시킨 것은, [건륭제가] 후에 훨씬 서쪽에 떨어 저서 독립을 유지해 온 적대적 [서]몽골 [오이라트 =중가르] 부족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때 크게 도움을 준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Perdue (2005: 126) 인용.

팔기군은 활과 창칼로 무장을 했으나, 한족 팔기군은 대포와 소총도 사용했다.¹²

만주족 정복왕조의 수립

1644년, 만주족, 몽골족, 요동한족으로 구성된 15만 여명의 팔기군은, 청에 내 부한 오삼계의 4만 군대와 함께, 해안을 따라 진격해 이자성의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경을 함락시켰다.¹³ [A.8.2.] Elliott(2001: 363-4)의 추계에 의하면, 1648년 현재 100 만 여명의 총 팔기 남성 인구 중 만주족 팔기가 16만, 몽골족 팔기가 8 만, 한군 팔기가 13 만, 그리고 한족 노복(奴僕)이 63만 여명이었다.¹⁴ Elliott의 추계에 의하면, 정복 당시 (노복을 제외 하고, 정규 중대 소속만을 계산하여 남녀를 모두 합한) 순수 만주족 팔기 총 인구는 40만 명이 채 안되었다. 이처럼 소수가 몽골족과 요동한족을 동원해, 1억2천만의 한족 명 제국을 정복한 것이다. 요동 출신 한족 팔기군이 없었다면 명 제국을 정복하고 중국본토 전체를 통치 한다는 것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¹⁵

정복 후, 팔기군 8%는 수도 북경 주변에, 35%는 만주에, 45%(42,253명)는 중국 본토 18개 전략 요충지에 수비대로 주둔했다. 물수한 농지를 배정 받은 팔기병들이 해당 지역의 한족 주민과 격리되어 가족과 함께 살수 있도록 (소위 Tartar Quarters/Manchu

¹² Elliot (2001: 77), Lorge (2005a: 140), 任桂淳 (2000: 55; 1981: 8, 35) 참조. 요하 주변에 정착해 살던 한족들은 니칸(尼堪)이라 불렀고, 청조 치하에서 본래부터 만리장성 아래에 살던 한족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다.

¹³ Fairbank and Goldman (1992: 146), Crossley (1997: 76), 任桂淳 (2000: 65) 참조.

¹⁴ Fairbank and Goldman (1992: 146)이 1648년 현재 만주족 팔기가 16%, 몽골족 팔기가 8%, 그리고 나머지 76%가 모두 한족 팔기였다고 말하는 것은, 팔기 노복(奴僕)을 모두 한군에 합친 숫자이다. Elliott (2001: 364)의 추계에 의하면, 1720년 현재 총 200만여 명의 팔기 남성 인구 중, 만주족 팔기가 45만, 몽골족 팔기가 18만, 한군 팔기가 60만, 그리고 한족 노복을 포함한 기타 인원이 80만 여명이었다. 1648-1720 기간 중, 팔기 남성 중 만주족 비중이 16%에서 22%로, 몽골족이 8%에서 9%로, 한군팔기가 13%에서 30%로 증가하고, 노복 비중이 63%에서 40% 정도로 감소한다. 여성과 노복을 포함한 팔기 총인구는 1648년의 1백90만 여명에서 1720년의 3백80만 여명으로 배가한다.

¹⁵ Janhunen (1996: 163-7), Spence (1990: 41) 참조. 1673-81년간 남 중국 삼번(三藩)의 난을 진압한 것은 20만 명 미만의 팔기군이였다. 任桂淳 (1981: 11) 참조.

Cities라는) 전용 주거지가 건설되었다.¹⁶ 1740년, 건륭제는 선별된 요동 한족들을 한군 팔기로부터 만주족 팔기로 이적시키도록 조치했다.¹⁷ 결과적으로, “공인된 존재로서의 한족 군대는 공격적인 전투 훈련을 받지 않고, 단지 우편물 배달 통로를 지키면서 지방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녹기군(綠營軍/綠旗軍) 뿐이었다.”¹⁸

한족 관리가 실무를 담당하고 만주족이 지휘-감독하는 통치 조직

명은 한족의 송 보다는 오히려 몽골 원 모양 정주도학(程朱道學)에 한정된 과거 시험제도를 실시 했었다. 청 역시 철저하게 주희(朱熹)의 주소(註疏)를 중심으로 한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청조는 명보다도 과거를 통과하는 학위 소유자의 수를 크게 늘려, 보다 많은 한족 지주 계급을 (以漢治漢) 한족 통치 수단으로 흡수했다. 명 왕조는 1371-1644의 273년간 총 22,980명을 진사 시험에 합격시켰는데, 청 왕조는 1646-1904의 258년간 (108차례의 회시를 통해) 25,441명을 합격시켰다. 년 평균 합격자가 84명에서 99명으로 증가한 것이다.¹⁹

진사와 전-현직 관리를 의미하는 신(紳), 생원-감생-거인 학위 소유자를 의미하는 사(士), 이들 모두에게 명조 후기와 마찬가지로 부역이나 이를 대체하는 조세를 감면해 주는 (徭役優免) 특혜를 주면서, 지방관의 공인된 협력자로서 통치 보조역할에 활용하여, 지방 향촌의 여론을 정복왕조에 협조적으로 유도 했다. 하급 시험을 통과한 생원(生員/童試) 합격자와 지방학교 입학생과 상급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 거인(舉人/鄉試) 합격자와 과거 준비기관 입학생 (監生/太學 이라는 國子監 입학생) 모두에게 체벌 감면 등 각종 특권을 주어, 부유한 지주-상인 출신 한족 지식계급의 기력이 장기간 시험-재시험

¹⁶ Elliott (2001: 348, 364), 任桂淳 (1981: 13, 22, 24, 158) 참조. 중국 본토의 팔기군 42,253명은 임계순이 추산한 1760년경의 숫자이다.

¹⁷ Crossley (1999: 56, 128), Elliott (2001: 351) 참조. 오랜 기간에 걸친 선별-제거 과정을 거쳐, 모든 팔기병은 마침내 만주족(혹은 몽골족)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¹⁸ Fairbank and Goldman (1992: 148-9) 인용. 녹기군은 항복한 명 병사들을 1644-59년 기간 중 재조직한 군대이었다. 임계순(2000: 159)에 의하면 당시 “녹영군(녹기군)은 팔기군의 3배인 60여 만 명에 달했다.”

¹⁹ Elman (2000: 696-9) 참조. 과거는 원칙적으로 3년에 1회씩 실시했다.

준비에 얽매어 소진되게 만들었다.²⁰

명 대 이래 과거 시험 준비를 하려면, 유능한 스승의 지도 아래, 정주도학의 틀 안에서 유교 경전(四書)의 단편적인 말을, 대구(對句), 성운(聲韻), 격률(格律)을 엄격히 따지는 팔고문(八股文)의 형태로 부연하고 늘려 한편의 글로 만들고, 아름다운 필체로 쓰는 문자 유희 교육을 장기간 주입식으로 받아야 했다. 과거 시험은 원칙적으로 천민을 제외한 모든 한족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자연히 엄청난 사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주나 부유한 상인 계급이 독점하여, 요역이 감면되는 특권 지주계급을 형성 했다. 청 왕조는, 특이한 능력-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한 과거제도를 통해, 향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주계급 출신 한족을 (八股-程朱- 註疏로 자주적 사고 능력을 제거한 다음) 관리로 등용 하거나, 지방 행정을 보좌케 했다. 만주족은 이들 한족에게 정복왕조에 협력하면서 각종 특혜와 명예를 얻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중국대륙을 성공적으로 통치 했던 것이다.

청 제국 문관-무관의 총 수는 40,000명 미만이었고, 그 대부분 수도 북경에 거주 했다. 100만 내지 150만 명의 한족이 각종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도 관리에 임명되는 행운을 얻지 못했지만,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와 협력하여 향리의 지방행정 보조 역할을 했다.²¹ 만주족은, 급부-반대급부의 제도화를 통해, 경직된 정주 도학으로 세뇌된, 충성스런 한족 신사 계급을 정복왕조의 공생-협력자로 흡수했던 것이다. 유교적 교육과 전통을 충실히 재생산하는 이들 한족 특권 지주 계급의 복종과 협력은 청 제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기초가 된 것이다.

최종 전시(殿試)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진사 합격자들은 1647년부터 황제 직속 비서실인 한림원 편수(編修)로 임명되었고, 만주어를 배워야 했다. 건륭제가, 1745년 전시에서 1-2위 성적으로 한림원에 들어온 한족 진사들의 만주어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책망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²²

²⁰ 金諍 (2002: 311)은, 진시항의 분서갱유(焚書坑儒)는 단숨에 460명의 유생을 소멸시켰지만, (과거 시험에서만 사용되는) 틀에 박힌 팔고문 형태로 정주(程朱)의 주소(註疏)만을 시험하는 명-청 대의 과거 제도는, 5백 년 이상이나 대를 이어 한족 지식인 전체를 [자발적으로 황제에 충성스런 노예의 길을 걷게 한 다음] 소진시켜 버렸다고 말한다.

²¹ Spector (1964: xxv-xxvii), Elman (2000: 241-2, 380), Peterson (2002: 361) 참조.

²² Elman (2000: 167-8) 참조.

만주족 황실 종친과 팔기 자제들을 위한 관학(官學)에서는 주로 말 타기, 활 쓰기, 만주어, 그리고 한족 통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교 경전을 교육시켰다. 1651년부터 만주-몽골 팔기병은 주둔지역 내에서 만주어-몽골어로 간단한 내용의 진사시험을 보았다. 합격자들은 황제를 알현한 다음, 7-9급 서기에 임명되었다. 6년간 근무한 후, 군 부대로 복귀하거나 원한다면 지방정부 고위 관리로 임용되었다. 팔기 하급 지휘관들은 쉽게 정부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고, 관료로서 부와 권력을 향유했다.²³ 1687년부터는 기마-궁술 시험에 합격한 팔기 자제가 한족들과 같은 내용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했다. 하지만 『만주-몽골 귀족은 특권을 누리 일반적으로 과거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고, 과거 시험은 거의 한족 사대부 들을 농락하는데 쓰였다. ... 건륭제 때의 60년 동안만 보더라도 수보 및 대학사로 임용된 가운데 한족 25명은 모두 진사 출신이었고, 나머지 기인(旗人) 35명 중에서는 진사 4명과 거인 3명이 고작이었다. ... 청대 통치자들은 팔고(八股) 과거 제도를 계승해 한족 사인(士人)들을 노예화 시킴으로서 확실히 성공적으로』 통치를 했다.²⁴

지방 현의 지현(知縣/종7품)은 90%이상 한족이었다. 진사에 합격한 다음 지방 관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한족관료도 많아졌지만, 조정의 고위직은 만주-몽골 세습 귀족이 거의 독점했다. 특히 중앙 행정기구의 실권은 만관(滿官)이 모두 장악했다. 내각 6부를 초월해 일체의 군국대사를 결정하는 국의(國議)인 의정왕 대신회의(議政王大臣會議)는 기주(旗主)를 포함하는 만주 귀족으로 구성 되었으며, 한관(漢官)은 참여할 수 없었다. 6부는, 만주족과 한족, 2명의 장을 가지고 있었다. 18개 성(省)에는 한족 장(巡撫)들과 몇 개의 성을 총괄하는 만주-몽골족 총독(總督)들이 있었다. 과거를 통해 선발된 유능한 한족 관리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충성스런 만주족들이 감시를 하는 체제인 것이다.²⁵ 청조 최후의 순간인 1911년 5월, 청 조정은 "책임 내각"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막판에도, 임명된 내각 대신 13명 중 만-몽 세습 귀족이 9명이었고, 그 중 5명

²³ 임계순 (2000: 51-4, 160-6), 임계순 (1981: 49-50), Peterson (2002: 7), Elman (2007: 166-7) 참조.

²⁴ 金諱 (2002: 308-9) 인용.

²⁵ Fairbank and Goldman (1992: 148-149) 참조. "청 초기에는 한군기인이 독무(督撫) 직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본토] 한인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만인은 언어나 통치기술면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순치연간에는 총독(總督)의 77.6%, 순무(巡撫)의 75.5%가 한군기인 이었다." 임계순 (2000: 141) 인용.

은 황족이었다.²⁶

청조 지배자들은 만주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거란-여진-몽골 정복왕조들의 관행을 본받아, 중요한 내용의 서류는 한족이 알 수 없는 만주어로 작성했다. 강희제와 옹정제는 전국 각지의 고위 지방 관리들과 직접 교신하는 주접(奏摺) 제도를 통해 관료기구 전반을 철저히 감시했다.²⁷

만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근검-상무 정신의 고취

만주족은 한족 모양 천치이던 불량배이던 장남이면 제위를 승계한다는 관행이 없었다. 만주족은 “알타이 습속에 따라 가장 유능한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²⁸ 1662년 이후 13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강희제(r.1662-1722), 옹정제(r.1722-36), 건륭제(r.1736-96/d.99) 등, 세 명의 유능하고 근면한 황제들이 유교의 덕치를 내세워 신생 제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강희제는 몽골초원의 갈단 무리들을 토벌하기 위한 원정을 세 차례나 직접 지휘하면서 전쟁터의 긴장감을 즐겼다.²⁹

청조 지배자들은 한족과의 혼혈을 금지하고, 만주족의 전통과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려 노력 했다. 만주 황제들은 몽골족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 임을 천명했지만, 그들 자신의 고유한 샤머니즘 의식을 계속 거행했고, 사찰 내에서 무속인들이 제례를 지낼 때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한족의 참관을 금했다.³⁰ 팔기병들의 근검-상무 정신을 고취하고, 사냥과 말 타고 활 쏘는 훈련을 통해 정복자로서 무력상의 우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들 자신 만주 글과 말을 사용하면서 한족과의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했다. 청조 지배자들은 전족(纏足)이 한족의 야만적인 여성 비하 관습이라 멸시하면서, 만주족 여인들은 절대로 발을 목지 못하게 했다. 만주족 황제들 자신 내몽골(承德

²⁶ 翦伯贊 (1990: 427), 임계순 (2000: 138-41) 참조.

²⁷ Fairbank and Goldman (1992: 143 and 151) 참조.

²⁸ Elliott (2001: 356) 인용.

²⁹ Fairbank and Goldman (1992: 147-8), Perdue (2005: 188), Barfield (1987: 285) 참조.

³⁰ Spence (1990: 41)

/熱河)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사냥과 말 타고 활 쏘기를 통해 심신을 단련했다. 청 왕조 지배자들은 샤머니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라마 불교, 이슬람교, 한족의 유교 전통 등을 모두 존중해 주었다. 1901년까지 만주족과 한족의 결혼이 금지되었었다. 만주 팔기병 가족과 한군 팔기병 가족간의 결혼은 허용되었었지만, 애당초 "한군 팔기병은 만주족으로 간주 되었었고, 그들의 말투나, 행동거지는 토박이 만주족과 구별이 되지 않았었다."³¹

중국 정복 이후, 한족의 요동 유입이 급증하자, 강희제는 1668년에 봉금(封禁)을 실시하는 동시에, 요동에 이미 정착한 한인들이 기타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도록 유조변(柳條邊)을 축조했다. 청 황제들은 수만 명의 팔기 주방병(八旗駐防兵)을 성경(盛京/瀋陽)에 주둔시켜 자신들의 근본 발상중지(發祥重地)를 만주족의 말 타고 활 쏘는 무략본습(武略本習)의 터전으로 보존시키려 노력했다.³²

청조의 실질적인 창건자인 홍타이지(태종)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우리 만주족 후손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고유의 옛 전통을 버리고 중국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륭제는 태종의 유지를 비석에 새겨 팔기병들이 군사 훈련을 받을 때 마다 보여 주게 했다.³³ 그는 옛 만주족의 전통을, 무술 연마에 진력, 만주어로 말하고 쓰기, 샤머니즘, 근검절약, 조상 숭배 등으로 정형화했다. 건륭제는 "너희들이 사서-오경 고전을 배웠건 안 배웠건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³⁴ 여진족 금 나라가 12세기에 한족 송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건륭제 조정 이 경축하며 노래를 부르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은, 만주족이 여진족 금나라 사람들

³¹ Wittfogel and Fêng (1949: 11), 任桂淳 (1981: 36, 51) 참조.

청 조정은 티베트 불교의 일파인 황색 라마교가 몽골족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방관하였다. 청 왕조 후기에는 몽골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군복무를 위한 몽골족 주민등록의 단속이나, 티베트 불교 사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몽골 남자들의 절반 가량이 라마가 되기 위해 속세를 떠나 사원에 들어갔다. 유목 생활로부터 몽골족의 이와 같은 이탈은, 후손을 없애고 군사적 경험 습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몽골족의 잠재적 위협을 크게 감소시켰다. Jagchid and Symons (1989: 21) 참조.

³² 김한규 (2004: 567-73) 참조.

³³ Elliott (2001: 277)

³⁴ Crossley (1999: 307-9)

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의식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³⁵

일찍이 몽골은 중앙 아시아의 오아시스 국가들과 달리(大理)를 정복하고, 티베트를 종속국으로 만들었다. 몽골군은 버마에 이르렀고, 베트남과 참파의 정복을 시도했었다. 만주족 지배자들은 몽골 정복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과거 진-한 왕조가 성취했던 것 보다 훨씬 광대한 영토적 통일을 달성했다. 1770년대 중반, 건륭제는 (타르바가타이 동쪽, 알타이산맥 서쪽의) 중가리아와 (천산산맥 남쪽, 곤륜 산맥 북쪽의) 신강 지역을 포함하는 중앙 아시아의 정복을 완료했고, 이 모든 지역을 오늘날의 중화 인민공화국이 상속 받았다.³⁶ 만주 땅 전체가 중국에 포함된 것 자체가 만주족에 의한 중국대륙 정복-통치의 산물인 것이다.

역사를 오로지 한족(漢族)의 중화 이념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관행

아주 전형적인 한족 중심의 중국역사 서술 사례를 하나만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청 제국은 만주족에 의해 정치적 문화적 외형의 일부가 형성되었다; 청 제국은 만주족에 의해 규제를 받았다; 청나라는 비록 만주족에 의해 창건되었지만, 청 지배자들은 고래로 확립된 한족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을 개조했다; 청조의 황금시대는 청나라 지배자들 중 가장 유교적이고 가장 중국화된 건륭제의 치세이었다.』 Crossley (1999: 3)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서술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청 나라 역사를 전공한다는 모든 학자들이 수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 에 속한다는 것이다. 정복-통치의 도구로서 352년 이래 지속된, 한족이 한족방식(漢制)으로 한족을 다스리게 하는 (以漢治漢) 2원-통치 제도의 결과로 나타난 외형상의 연속성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역사가들의 착시(錯視) 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다.

실상을 보면, 한족 명나라 황제들은 고위 관료들에 대항해 통치권을 장악하는 투쟁을 계속 했어야만 했다. 만주족 청나라 황제들은 아주 분명하게 직접 통치를 했다. 만주족은 제국의 영토를 2배 이상으로 확장 했다. 명나라의 13개 지역 단위와 2개의 수

³⁵ Elliott (2001: 355)

³⁶ 처음부터 만주족에 적극 협력한 내몽골의 몽골족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자치구로 예속 되었다. 뒤늦게 청에 협력을 하게 된 외몽골의 몽골족은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납고 용맹하다는 서쪽 몽골족들은 청나라에 계속 완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인종 말살의 비운을 맞았다. 중가르 몽골족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Perdue (2005: 286) 참조.

도 권역은 청나라 때 18개의 지역 단위로 개편되어 “중국 본토”라고 불리는 내지를 구성했다. 만주, 몽골, 신강, 티베트, 대만 등은 비 한족 관리들의 관할 하에 만주장군(滿洲將軍), 이번원(理藩院) 등을 통해 별도로 다스려 졌다. 만주족 황제들은 근검-절약과 상무정신을 고취하면서 제국을 통치했고, 중국화를 저지하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만주 정복자들은 그들 고유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흥했고, 또 망했다.

대다수의 한군 팔기병은 만주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했기 때문에 정복 초기에 대거 중앙 관료로 임용되었다. 특히 강희제는 지방의 (정2품) 총독과 (종2품) 순무에 한군 팔기(漢軍八旗)를 대거 등용 했었다.³⁷ 요동 지역의 한족 정착민 후예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방언, 즉 알타이 계통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만주족 귀에 익은 요동한족 팔기군의 언어가, 청조 지배자 들에 의해 북경으로 반입되어, 한족을 다스리는 정복왕조 관리들이 사용하는 언어(北京官話)가 되었고, 중앙 관료로 출세할 꿈을 가지고 진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 중국 한족 지식계급의 필수 공용어가 되는 과정을 거쳐, 현대 중국의 공식 상용어가 된 사연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³⁸

³⁷ Crossley (1999: 120), Peterson (2002: 176), 임계순 (2000: 141) 참조.

³⁸ Janhunen (1996: 163-7), Spector (1964: xxv-xxvii), Crossley (1999: 120), Peterson (2002: 176), Elman (2000: 167-8, 239-40, 375, 380) 참조.

Appendix 8. 청과 조선

A.8.1.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명(1368-1644) 조정은 요하 유역에 자국 장군들의 지휘를 받는 강력한 수비대를 주둔시켰었고, 명 나라 군대 모병에 여진족과 조선족들이 적극 응했다.³⁹ 명-청 교체 이전의 요동-길림 지역은 중국본토, 몽골고원, 한반도, 그리고 토착 고유 문화의 유동적 요인들이 정치-경제 흐름에 따라 소용돌이 치는 “저수지(reservoir)”이었고, 여진-만주족은 변경(邊境)족 혹은 “크리올 (현지 출생 이민족)” 모양, 시류에 따라 몽골족, 한족, 혹은 조선족과 어울리는 문화적 “카멜레온”이었다.⁴⁰

여진족은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건주 부족은 (조선 국경 북변을 따라) 두만강 북쪽의 장백산맥 지역에서 사냥과 농경을 하였으며, 부족 생활을 하지 않는 (熟 길들여진) 훈족은 요하 동쪽과 심양 북쪽에서 농경과 교역을 하면서 “니칸”이라 불렀던 한족 이주 정착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반면, 수렵과 사냥, 채집과 원시적 농경에 종사하던 생여진(生女眞) 족은 보다 북쪽인 목단강 동쪽에서 (송화강 하류, 흑룡강 중류, 우수리 지역에 이르기 까지) 살고 있었다.

청 나라(1616-1911) 시조 누르하치(1616-26)는 건주(建州) 부족장의 아들로 훈족 부족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고, 생여진 부족들도 복속시켰다.⁴¹ 1616년, 누르하치는 자신이 후금(後金)의 칸이라고 선언하였다. 1621년, 심양과 요양은 여진족 군대에 함락되었다. 1625년, 누르하치는 심양을 후금의 수도로 정했다. 1635년, 누르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 홍타이지(皇太極 r.1626-43)는 공식적으로 여진족을 만주족이라고 개명하고, 다음해 1636년에는 자신을 청 나라 황제라고 선언했다. 곧 이어 내몽골 부족들을 포섭하여 만주족 제국에 편입 했다.

A.8.2. 조선 조정의 사대주의 전략

1596년 음력 설날, 조선 조정에서 파견된 사신 신충일에게 누르하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두 나라는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두 왕실은 하나가 되어, 자자손손 영원히 뭉쳐서 우호적으로 살 것이다.” 누르하치는 조선 조정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귀국과 우리 여진족 국가는 앞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두텁게 해 가고, 우리 두 나라의 백성들은 군사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⁴²

³⁹ Crossley (1999: 85) 참조.

⁴⁰ Crossley(1999: 47)가 Owen Lattimore의 견해를 인용한 것임. 몽골족은 “거란선비족”을 포함한다.

⁴¹ 누르하치의 북방 정벌과 계획적인 종족 이주-정착 정책에 따라, 흑룡강 유역의 생 여진족들은 대부분 재배치되어 건주 부족과 통합되었다. Janhunen (1996: 101-6, 157) 참조.

⁴² 1595-6년 겨울에 허투알라 성채에 있는 누르하치의 지휘 본부를 방문했던 조선 사신 신충일(申忠一)이 자세하게 기록한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를 Crossley(1997: 57, 59)가 번역한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Crossley(1997: 60)는 신충일 사절단의 임무가, 건주 여진족에게 조선의 북방 경계선을 준수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명나라와 싸우기 위해 누르하치와 정치적 동맹을 형성

한반도에서는 선조(r.1567-1608)를 승계한 광해군(1575-1641/r.1608-23)이 노련한 솜씨로 외교 정책을 수행하여 조선이 여진족과 명 나라 사이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했다. 임진왜란(1592-8)을 직접 체험했던 광해군은 수비 요충지들을 수리하고, 무기 체계를 개량 하고,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광해군은 인조(b.1595 r.1623-49)를 내세운 무리에 의해 쫓겨났다. 국제정세에 무지한 인조는 반-여진 친-명 정책으로 선회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만주족은 명과의 싸움을 벌리기 전에 조선 조정의 정책 전환에 의해 야기된 후방의 위협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⁴³

국명을 청이라고 바꾸기 전인 1627년, 청 태조 홍타이지는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했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후금을 형님으로 모신다는 형제의 맹약(兄弟之盟約)을 받아 낸 다음 철군을 했다. 자신을 황제라 칭하면서 국호를 청으로 바꾼 1636년, 홍타이지는 조선 조정에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다. 조선 조정이 이를 거부하자 청 태종은 (만주, 몽골, 요동 한족 병사들로 편성된) 1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조선을 침공해 신복(臣服) 시켰다. 1637년, 인조는 항복을 하면서,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청조를 모시며, 명나라 원정을 돕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고, 두 왕자를 인질로 보내겠다는 등의 서약을 했다.

청의 한반도 침략은 단기간에 끝장이 난 것이지만, 당시 청나라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서북 지역은 황폐화 되었다. 1020년 이후, 한반도 사람들이 거란족이던, 여진족이던, 몽골족이던, 한족이던 간에 강자에 신복하고 기민하게 사대주의 외교를 실천하는 경우에는 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세 판단을 잘 못하고 강자에 대항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자세를 전환할 때까지 전국이 전화로 파괴 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중국 본토를 정복하려는 만주족 세력은, (적대적 자세를 취하는) 한반도 사람들에 의한 후방의 위협(소위 後顧의 걱정거리)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⁴³ 이기백 (1984: 215)